

“국가중요시설 지켜라” 서울 수호 통합방위전력 집결

육군56보병사단, 합동 테러 대응훈련
위협 식별부터 환자 후송·무력진압까지
부대·기관들 갈고닦은 대응 능력 발휘

육군56보병사단은 25일 서울시 충무훈련의 하나로 서울 시내 한 정수장에서 유관기관과 국가중요시설 합동 테러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 따라 적의 도발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은 △미상 드론 식별 및 무력화 △적 특수전부대 침투 △국가중요시설 테러 △인질 구출 △적 특수전부대 무력진압 순서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56사단 광진구대대를 비롯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수호신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귀성부대, 광진경찰·소방·구청, 정수장 방호팀 등 수도 서울을 수호하는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투입됐다.

통합방위전력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대테러 전투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군·경 테러 혐의점 확인, 환자 후송, 특수부대의 무력진압 등을 물 흐르듯 수행하며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훈련을 주관한 허준(중령) 광진구대대장은 “테러 상황에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국가방위요소의 힘을 한데 모은 성공적인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25일 서울시 충무훈련의 하나로 열린 육군56보병사단 국가중요시설 합동 테러 대응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이 적 특수전부대를 진압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부대 제공

적 드론 공격 시 신속한 상황 공유·대응 자신감

육군1군단, 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
민·관·군·경·소방 일사불란 대처

육군1군단은 25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국가중요시설에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훈련을 했다.

훈련에는 1군단 예하 부대와 민·관·군·경·소방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적 드론이 국가중요시설에 공격을 가한 상황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지역 내 테러 발생 시 관계기관들이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작전을 조기에 종결, 추가 테러와 주민 피해를 방지하는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

참가자들은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발전방안 도출 △민·관·군·경·소방 협조체계 및 통합방위작전 실효성 검증 △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주민 보호대책 마련 등을 함께했다.

우선 훈련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미상 드론이 폭발한 뒤 화재를 일으키고 유독가스가 유출된 상황이 부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뒤 군에 대공혐의점 판단과 추가 테러 상황 대비 협조를 요청했다.

1군단 예하 사·여단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CRST)·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폭발물처리반(EOD)·화생방신속대응팀(CRRT), 군사경찰 특임대 등 대테러부대가 출동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폭발물·화생방 유해물질 식별·탐지·처리 활동을 하며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육군1군단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훈련에 참가한 화생방신속대응팀 장병들이 화생방 유해물질 식별·탐지·처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부대 제공

이날 훈련에선 주성운(중장) 군단장과 국가중요시설 시설장·경찰 관계자가 모여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방호체계 조기 구축, 전시시설 기능 유지 등의 토의도 병행했다.

훈련에 참가한 9보병사단 검은박쥐대대

장 오원근 중령은 “이번 훈련으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와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작전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회 통합방호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작은 불씨도...산불 번지기 전 기필코 막는다

해병대 연평부대 통합 소방훈련
화재 발생 가정 민·관·군 유기적 대응

해병대 연평부대는 25일 연평도서 내 화재·산불 상황을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자 소방·경찰 등과 ‘민·관·군 통합 소방훈련’을 펼쳤다.

훈련은 ‘2024년 전반기 통합 안보간담회 주요 과제’ 후속조치의 하나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연평부대 소방반, 연평면사무소, 연평119지역대, 연평파출소 20여 명이 참가했다. 소방차 2대, 급수차량 1대 등 장비도 투입됐다.

훈련은 연평주유소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 부여되면서 시작됐다.

마을 주민의 화재 발생 신고를 받은 119지역대는 신고 상황 접수 후 부대에 화재 진압 협조를 요청했다.

연평부대는 재난대책본부를 소집해 상황을 전파·공유하고 소방반 출동을 지시하는 동시에 5분대기소대와 예하부대 출동 준비 명령을 하달했다.

연평파출소는 현장을 통제하고, 현장에 모인 연평부대 소방반과 119지역대는 진화 활동을 벌였다.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상황도 주어졌다.

부대는 신속하게 5분대기소대와 예하부대를 급파해 개인 산불진화장비로 진화에 나섰다. 추가로 산불기계화장비 급수 부족 상황까지 조성됐다. 부대는 면사무소 급수차량을 동원해 이를 무난히 극복했다. 장병들이 잔불을 완벽히 제거하면서 훈련은 마무리됐다.

부대는 지역 관계기관과 최초 훈련 상황 내용 공유부터 현장 대응까지 모든 소방 절차를 함께해 합동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해령 기자

북 대량항적 공격 대비 대공방어·공중전력 운용 방안 논의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전술토의

우리 군이 북한의 대량항적 공격에 대비한 대공방어·공중전력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량항적 공격을 펼친 가운데 북한의 유사한 공격에 대한 합동 대응방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25일 부대 대회의실에서 ‘대공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전술토의’를 했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주관한 토의에는 김형수(중장) 공작사령관과 김종호(소장) 미사일방어사령관을 비롯한 대공방어작전과 관련된 전군 주요 작전부대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사례

를 분석하고, 북한의 대량항적 공격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공방어·공중전력 운용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를 벌였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하면서 무인기·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등을 혼합한 대량공격을 실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절차, 무기체계 보완, 합동작전 운용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미사일방어사는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공방어 시스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북한의 여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정운(대령) 미사일방어사 정보작전처장은 “향후 합동전력 운용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었던 전술토의”라며 “관련 작전 부대들이 자주 교류해 상호운용성을 극대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